

《삐비 이야기》 송진현 글 · 그림/창작과비평사/40쪽/값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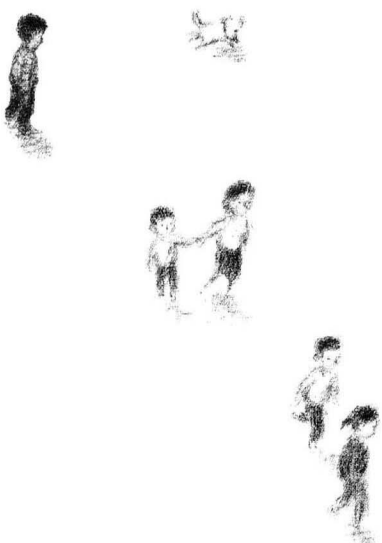
외로운 친구가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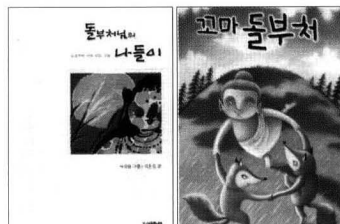
유명 인터넷 사이트의 모임 중에 자폐아를 둔 부모님들의 공간(<http://cafe.daum.net/love0531>)이 있습니다. 회원이 무려 1,800명에 달하는 적지 않은 이 공간에서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자폐증' 정보를 교환하죠. '자폐'는 현실과 떨어진 채 자기세계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자폐아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폐'라는 말이 일반화되고 방송을 통해 이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소개된 적도 많았지만 어린이들에게 '자폐'는 아직까지 생소, 동시에 가슴 아픈 병입니다.

《삐비 이야기》의 삐비 역시 자폐아처럼 숲속을 거닐며 나뭇가지를 머리로 때리는 반복행동을 하는 아이입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거나, 새로 산 게임기를 자랑하며 친구들을 집으로 안내하는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다른 친구죠. 이 책은 그런 삐비에게 남모를 미안함을 갖고 있었던 주인공의 일기장 같은 책입니다. 엄마가 부르기 전까지 숲속에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 삐비. 주인공은 삐비에게 호기심을 갖고 마음을 열어보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 다른 친구들과 지내는 게 더 좋아졌답니다. '미친애라서 가까이 가면 옴을지도 몰라'라며 삐비를 경계하는 친구들 말에 비를 맞고 숲속에서 있는 삐비를 그냥 바라볼 뿐이죠. "내가 아주 어릴 적 이야기야. 삐비라는 아이가 있었어"라고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삐비와 같은 외로운 친구를 발견하면 선뜻 손을 내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무리지어 다니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혼자 다니는 아이들을 손가락질하기 바깥입니다. 그러면서 생긴 현상이 '왕따'죠. 삐비같이 특별한 친구들은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다르게 행동하기에 아무 죄 없이 따돌림을 받습니다. 죄의식 없이 남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더 어두운 곳으로 내모는 친구들. 오히려 이상한 것은 이런 친구들인데 말이죠. 이 책은 그런 친구들에게 '자폐' 처럼 특별한 증상을 갖고 있거나 세상에 대해 마음을 열지 못하는 외로운 친구를 따돌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라고 충고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여는 것만이 최고는 아닙니다. 친구의 손을 쉽게 놓는 것은 손을 내밀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 있거든요. "삐비야! 오래오래 친구하자!"며 외로운 친구의 손을 잡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책을 덮고 나면 삐비가 말괄량이 삐삐처럼 밝고 명랑한 주인공이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삐비라는 이름은 삐비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음의 신호를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송진현 선생님의 흑백 연필화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삐비의 내면을 표현합니다. 예전 흑백 필름을 돌려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책. 《삐비 이야기》는 학창시절 장난삼아라도 누군가를 따돌려본 적 있는 어른들에게는 옛 일들을 떠올리며 반성하는 기회를 주고, 초등학교에 갓 입학해서 새로운 친구 만나기에 바쁘지만 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값진 충고를 해주는 책입니다. **김청연**

김청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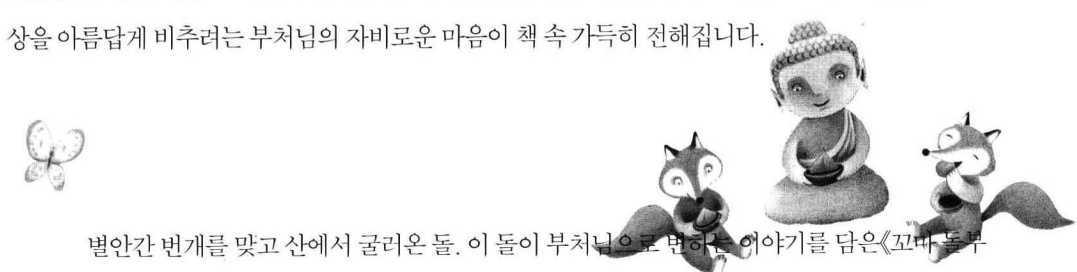


《돌부처님의 나들이》 지호진 글/사석원 그림/시공주니어/92쪽/값 8,500원
 《꼬마 돌부처》 하오 광차이 글/줄리아노 페리 그림/박지민 옮김/예림당/30쪽/값 8,000원

천진난만, 권위를 벗어던진 자유로운 부처님의 미소를 만나요

천진난만한 미소의 부처님이 책을 펼치는 아이들 마음을 두드립니다. 최근 나온 《돌부처님의 나들이》와 《꼬마 돌부처》는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부처님 대신 은근슬쩍 장난도 치고, 미소도 짓는 친구 같은 부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돌부처님의 나들이》는 사석원, 지호진 두 선생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책인데요. 책을 펼치면 왼쪽 페이지에 사석원 선생님이 그린 다양한 모습의 돌부처님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호진 선생님의 짙막한 이야기와 시가 소개되어 있죠. 두 선생님이 만들어낸 부처님의 미소가 넓은 여백을 두고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이 책 속 돌부처님은 어린이들의 친구나 다름없습니다. 어린이들처럼 버스를 타기도 하고, 다리가 아프면 당나귀를 타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모든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때문인지, 자비로운 마음씨 때문인지 친구들도 정말 많습니다. 토끼, 강아지, 호랑이, 거북이 등 여러 친구들이 나들이 길동무가 되어줍니다. 동그란 코에 붉은 볼을 한 돌부처님의 모습. 사석원 선생님은 이 천진난만한 얼굴을 포근한 한국화로 표현했습니다. 얼굴처럼 부처님은 자신보다 사람들과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생각하는 자비로운 분이죠. 화려한 옷 대신 흙빛의 초라한 옷을 입은 이유도 자신보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자신을 낮추며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책 속 가득히 전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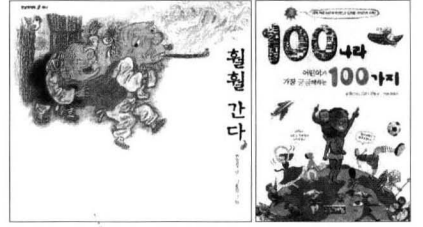


별안간 번개를 맞고 산에서 굴러온 돌. 이 돌이 부처님으로 변하는 이야기를 담은 《꼬마 돌부처》의 부처님은 만화 주인공 같습니다. 귀여운 외모의 꼬마 부처님은 만화 속 주인공처럼 요술을 부려 남을 돕거든요. 아이들처럼 작고 어린 꼬마 부처님이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넓은 마음씨는 큰 부처님 못지않습니다. 다리 아픈 이가 있으면 의자가 되어주고, 더위에 지친 사람이 있으면 시원하게 입김을 불어주기도 하는 꼬마 부처님. 껌직한 표정의 꼬마 부처님 역시 책을 통해 종교적인 위엄을 완전히 벗어 버립니다. 여우와 손을 잡고 춤을 추기도 하고, 팔베개를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재빨리 그곳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공상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말이죠. 위험에 빠져 있는 동물을 도와주고, 복숭아 하나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여우들을 화해시키며 그들과 함께 노는 부처님 모습이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두 권의 책은 '남을 돕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절대자의 입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 눈높이에 서 있는 부처님의 행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보여줍니다. 고정된 이미지를 벗고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탄생한 부처님. 돌부처님의 나들이와 꼬마 부처님의 신기한 세상 구경을 통해 '웃음'과 '배려하는 마음'을 닦아갔으면 합니다. ☘

김정연 기자



《월월 간다》 권정생 지음/김용철 그림/국민서관/36쪽/값 8,000원

《100나라 어린이가 가장 궁금해하는 100가지》 황근기 지음/김진화 외 그림/한정우 만화/계림닷컴/212쪽/값 8,500원

‘이야기 한자리’ 있으니 모두들 놀러오세요



곰방대를 입에 문 할아버지, 친진한 미소를 짓는 귀여운 할머니 모습이 인상적인 책입니다. 우리나라 입말을 잘 살린 《월월 간다》에는 이같은 토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책을 펼치면 “역시 우리 것이 최고야!”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되죠.

어린이처럼 할아버지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달라고 조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무명 한 필을 들고 재미있는 얘기를 사러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무명을 팔고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실 농부가 들려준 이야기는 지나가는 황새의 모습을 흘끔 보고 만든 것입니다. ‘월월 간다, 성큼성큼 걷는다, 기웃기웃 살핀다’ 등은 모두 황새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황새가 이삭을 쪼아 먹으려고 하자 ‘예끼 이놈!’ 하고 끝을 맺는 농부,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려주던 밤에 집에 도둑이 들어오죠. ‘예끼 이놈!’ 소리에 놀란 도둑의 모습이 귀엽기까지 합니다.

해학적인 상황설정으로 웃음을 만들어낸 이 책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교훈보다는 이야기 자체가 갖는 맛이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한 흔적도 보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미소 짓는 노부부의 모습에서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기도 하고, 도둑과 황새의 행동에서 공통점을 발견한 점이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시골 장에서나 펼쳐질 듯한 ‘이야기 한 판’ 에 아이들을 초대하세요.

옆 나라 어린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
사람들 얻어주고,
털 버리고,
재워주고...
감 피곤하다.
피곤해~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 최근 어학공부를 이유로 외국에 나가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단순한 여행보다는 다른 민족의 문화를 알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100나라 어린이들이 궁금해 하는 100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은 몇 시간 독서를 통해 세계일주와 같은 경험을 안겨줍니다.

올해가 양의 해이니 양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볼까요? 뉴질랜드에는 사람보다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인구가 약 380만 명인데 양의 수는 약 5,000만 마리라고 하거든요. 양은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옷을 만들어주고, 식용으로도 쓰이고, 사람들은 양털을 판 돈으로 집을 짓거든요. 침 뺏기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싱가포르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로 알려진 싱가포르에서는 길에 휴지를 버리거나 침을 뱉으면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아무데나 휴지를 버리는 어린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죠. 100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세상을 보는 넓은 눈을 갖게 됩니다.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 특정 나라의 제도나 관습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요. 세계는 넓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다른 나라 어린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



김청연 기자